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2, 243 - 259

## 한국판 추론양식 척도(CSQ)의 신뢰도 및 타당도<sup>†</sup>

유 정 현    현 명 호<sup>‡</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추론양식 척도(Cognitive Style Questionnaire)는 절망감 이론에서 우울증에 대한 인지취약성 요인으로 제안한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을 측정한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추론양식 척도가 타당화되지 않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2번의 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우선 2주에 걸친 추론양식 척도의 반복 측정을 통해 내적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신뢰로운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6주에 걸친 전향적 중단연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론양식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절망감 이론에서 제안한 대로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 추론양식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지취약성 요인인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6주 후의 절망감 우울증 변화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추론양식 척도의 예언타당도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우울증과 공존이환율이 높은 불안에 대한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의 예측력을 검증한 결과,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판별타당도는 기각되었다. 결론적으로, 추론양식 척도는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개인의 추론양식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이 입증되었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추론양식, 신뢰도, 타당도, 절망감, 우울증

<sup>†</sup> 본 연구는 2010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명호,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우울증은 흔하기도 하지만 매우 치명적인 정신 병리이다(Bieling & Grant, 2007). 2006년도 정신 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은 5.6%(남자3.6%, 여자 7.6%)로 2001년 조사결과인 4.0%보다 증가하였으며, 주요 정신장애 중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조맹제 등, 2009).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주요우울장애 평생유병률은 12.8%, 미국은 16.6%로 높게 나타났다. 재발률도 매우 높아서 첫 번째 우울일화에서 회복된 사람의 50% 정도, 2번의 우울일화를 경험한 사람 중에서는 80% 정도가 재발을 경험하게 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높은 유병률 및 재발률과 더불어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도 일반인에 비해 약 2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arris & Barraclough, 1997).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계해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3조 856억 원(국립서울병원, 2005), 외국의 경우는 160억 달러(Kupfer, Frank, & Wamhoff, 1996)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듯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에 우울증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Murray & Lopez, 1996).

우울증의 심각성을 인식한 연구자는 예방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우울증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Burcusa & Iacono, 2007). 특히 인지이론가는 부정적 생활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하고 기억하는 방식에서 우울증에 취약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Hankin, 2008). 대표적 인지이론 가운데 하나인 절망감 이론(Abramson, Metalsky, & Alloy, 1989)에서는 (1)부정적 생활사건의 원인을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원인으로 습관적으로 추론하고(원인에

대한 부정적 추론양식), (2)부정적 생활사건이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며(결과에 대한 부정적 추론양식), (3)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해 자신을 무가치하거나 결점이 많은 사람으로 추론(자아가치에 대한 부정적 추론양식)하는 경향성을 인지취약성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절망감 이론은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에 대한 부정적 추론양식을 보이는 사람이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쉽게 우울해지는 것으로 보았다.

절망감 이론의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은 부정적 생활사건 자체보다도 부정적 생활사건의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를 어떻게 추론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우울반응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므로 모델 검증에 앞서 인지취약성 요인의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절망감 이론과 달리 세 가지 추론양식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연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원인 추론양식이 인지취약성 요인으로 자주 검증되었다(Hankin & Abramson, 2002; Hankin, Abramson, & Siler, 2001).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 가지 추론양식을 측정하는 도구가 없어 연구자들이 귀인양식 척도(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 ASQ)를 대신 사용하였기 때문이다(Abela & Payne, 2003; Abela & Sarin, 2002). 국내의 경우 추론양식 척도 대신에 사용되는 원인에 대한 귀인양식 척도(ASQ)의 내외성 차원의 신뢰도가 .40~.47로 높지 않아 더욱 문제시된다. 신뢰도가 낮은 측정도구는 2중 오류의 가능성(실제 효과크기보다 작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내적일치도 계수가 .70이하인 경우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DeVellis,

1991; Nunnally & Bernstein, 1994). 그러므로 절망감 이론의 검증을 위해서 추론양식 척도의 타당화가 시급하다.

Abramson과 Metalsky(1989)는 귀인양식 척도(ASQ)를 수정하여 추론양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첫째, 결과 및 자아가치 추론양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추론양식 척도는 세 가지 추론양식을 모두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부정적 생활사건의 원인 추론양식 점수를 산출할 때 내외성 차원은 제외하였다. 셋째, 생활사건 시나리오를 12개로 확대하였다. 시나리오에 포함된 사건은 수업이나 연인관계와 같이 주로 대학생 시절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추론양식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된다. 우선 응답자는 시나리오에 포함된 가상적인 사건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한다. 예를 들어, '애인이나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라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에서 응답자는 이 사건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상상한다. 그 다음에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발생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 한 가지를 기술한다. 이어서 기술한 원인을 7점 척도인 내외성(원인이 주위환경 탓인지 아니면 자신 탓인지의 정도), 총체성(원인이 삶의 특정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정도), 안정성(원인이 일시적인지 또는 지속적인지의 정도) 차원에 따라 응답한다. 이들 차원 중 총체성 및 안정성 차원의 평균 점수로 원인 추론양식이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는 그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유발될 것으로 생각하는지(결과), 그리고 부정적 생활사건은 자신이 결점이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는지(자아가치)에 대해서 7점 척도에 응답하면 된다. 응답자의 추론양식 점수는 12개 문항의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 추론양식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다. 추론양식 점수는 1점에서 7점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높은 점수는 우울증에 대한 인지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sup>

추론양식 척도의 장점은 첫째 인지취약성 요인을 점화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Hollon, 1992). 추론양식 척도의 각 문항마다 응답자는 가상적인 사건이 실제로 자신에게 발생한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요구받는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지취약성 요인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점화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Abela & Brozina, 2004). 둘째 추론양식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응답자에게 개방형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응답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응답을 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의 답변에 대해 후속 질문을 제공하고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함으로써 정량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론양식 척도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특정 사건을 제시하고 사건의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에 대해 추론하도록 요구할 뿐 자신이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론양식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추론양식 척도를 우리말

1) 추론양식 점수 산출에서 긍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12문항만 변안하여 타당화하였다.

로 번안한 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I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주에 걸쳐 추론양식 척도를 반복 측정하여 내적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II에서는 6주 동안의 전향적 종단연구를 통해 추론양식 척도의 구성타당도, 예언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째, 구성타당도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론양식 척도가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 추론양식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절망감 우울증에 대한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의 예측력을 검증하여 추론양식 척도의 예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즉 추론양식 척도로 측정된 인지취약성 요인이 부정적 생활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절망감 우울증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면 추론양식 척도는 절망감 이론의 인지취약성 요인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이 우울증과 공존이환율이 높은 불안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추론양식 척도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연구 I

연구 I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론양식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방법

#### 참여자

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H대와 K대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82명이

었다. 남자가 56명, 여자가 125명(무응답 1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84세( $SD = 3.73$ )였다. 이들 참여자 중 재검사에 응한 참여자는 136명으로 남자가 37명, 여자가 98명(무응답 1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88세( $SD = 4.14$ )였다.

#### 절차

연구자가 문항을 번안한 후, 영어권 학위소지자(영국 공인 미술치료사) 1인 및 심리학 비전공자인 가족학 박사 1인의 1차 수정을 거쳤다. 1차 수정된 문항에 대해 이중 언어자인 심리학 전공 외국인 교수 1인이 역 번역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검토하여 수정한 후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추론양식 척도를 수업 중에 실시하였으며, 동일 참여자를 대상으로 2주 후에 추론양식 척도를 재실시하였다. 성태제(2002)에 따르면 재검사 기간은 기억효과 등을 배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의 기간을 설정하며, 추론양식을 타당화한 Hankin과 Abramson(2002)의 연구에서도 재검사 기간을 2주로 설정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다.

#### 분석

추론양식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구하고, 2주에 걸친 반복 측정치간의 상관계수(*r*)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12.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다.

추론양식 척도의 내적일치도가 표 1에 나와 있다.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3이었다. 이는 미국 대학생 집단의 내적일치도인 .92와 유사하다(Hankin, Fraley, & Abela, 2005).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 추론양식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3~.87 수준으로 Haefffel과 동료들(2008)이 30여 편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고한 내적일치도 수준인 .83~.91과 유사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결과가 표 2에 나와 있다. 표 2에서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r$ )는 .74이었으며, 문항별(총 12문항)로 계산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r$ )의 범위는 .25~.62이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간격으로 측정된 검사-재검사 신뢰도( $r$ )가 .80인 Alloy 등(2000)의 결과와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추론양식

**연구 II**

연구 II는 전향적 종단연구를 통해 추론양식 척도의 구성타당도, 예언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론양식 척도가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 추론양식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의 예측력을 검증하여 추론양식 척도의 예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즉 추론양식 척도로 측정된 인지취약성 요인이 부정적 생활사건과 상호작용하여 절망감 우울증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면 추론양식 척도는 절망감 이론의 인지취약성 요인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이 우울증과 공존이환율이 높은 불안수준도 유의하게

표 1. 추론양식 척도(CSQ)의 내적일치도 계수

구 분	Cronbach's $\alpha$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원인, 결과, 자아가치 추론양식의 평균)	.93
원인 추론양식(총체성 및 안정성의 평균)	.87
총체성 (12문항)	.83
안정성 (12문항)	.78
결과 추론양식(12문항)	.83
자아가치 추론양식(12문항)	.83

표 2. 추론양식 척도(CS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구 분	$r$
우울생성적 추론양식	.74
원인 추론양식	.73
결과 추론양식	.70
자아가치 추론양식	.45
문항별 검사-재검사 신뢰도(12문항)	.25~.62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추론양식 척도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방 법

### 참여자

참여자는 경기도 및 강원도 소재 I대와 K대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335명(남자 183명, 여자 151명, 평균연령 만21.06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6주 후의 2차 조사에 응답한 참여자는 285명(남자 157명, 여자 127명)이었다. 2차 조사(T2)에 응답한 참여자와 응답하지 않은 참여자는 첫 주(T1)에 측정된 우울점수(BDI),  $t(333) = -.37, ns$ , 절망감 우울점수,  $t(333) = -1.05, ns$ , 및 추론양식,  $t(333) = -.39, ns$ , 에서 차이가 없었다.

### 측정 도구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내적일치도 계수는 .98이었다. 본 연구의 T1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87이었으며, T2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88이었다.

**절망감 우울증상 척도(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 : HDSQ)**. Metalsky와 Joiner(1997)가 제작한 것으

로 절망감 우울증의 8개 증상을 총 32문항으로 평가한다. 윤소미(2002)가 번안하여 .83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보고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T1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92이었으며, T2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92이었다.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200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이며 8개 하위요인(이성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교수와의 관계,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문제)으로 이뤄져있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75~.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빈도만 측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경험빈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2이었다.

**상태-특질 불안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STAI)**.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87이었다.

### 절차

추론양식 척도, 절망감 우울증상 척도(HDSQ) 및 우울척도(BDI)를 소책자로 묶어서 수업 중에 참여자에게 나눠준 후 측정하였다. 연구가 시작된 첫 주(T1)에 측정된 우울점수(BDI)가 24점 이상<sup>2)</sup>으로 임상적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참여자 21명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을 연구에서 제외한 이유는 첫째 우울생성적

2) 이민규 등(1995)이 정상 성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BDI 표준화 연구에서 정상인을 우울증 집단으로 분류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인의 우울증 평생유병률에 접근하는 절단점수로 제안한 24점(남자의 경우 23점, 여자의 경우 24점)을 우울증 집단을 선별하는데 활용하였다.

추론양식이 기분에 의해 유도된 부정적 인지(mood-induced negative cognitions)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Swendson, 1997). 이로 인해 참여자의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이 우울증의 원인이 아닌 증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둘째, 다른 참여자에 비해 우울점수의 변화 폭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론양식 측정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6주 후에 절망감 우울증상 척도와 우울척도를 재측정하여 우울수준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불안 및 6주 동안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의 빈도도 함께 측정하였다.

## 분석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6주 후의 절망감 우울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etwise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Cohen 등(2003)의 권유대로 각 단계의 회귀모형이 유의한 경우에만 회귀모형에 포함된 개별변인의 유의성을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1종 오류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또한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검증되었을 때, 연구자의 의도대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절차 다음과 같다. 우선 우울생성적 추론양식 점수가 상위 25%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고위험 집단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저위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각 집단을 대상으로 T1에서 T2까지의 절망감 우울점수 잔차

변화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정적 생활사건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회귀방정식에 부정적 생활사건의  $\pm 1SD$ 에 해당하는 값을 대입하여 부정적 생활사건의 수준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절망감 우울증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그림으로 도식화하였다(Aiken & West, 1991).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12.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hi^2$ 값 및 부합도 지수(표준부합지수 NFI, 비교부합지수 CFI, 기초부합지수 GFI, 부합 증분지수 IFI)를 사용하였다.

## 결 과

### 구성타당도 검증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을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 추론양식의 총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공변량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원인 추론양식은 총체성과 안정성의 2개 측정변수로 구성하였으며, 결과 추론양식은 총 12개의 질문을 각각 6개로 나누어 결과 1과 결과 2라는 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자아가치 추론양식 역시 총 12개의 질문을 각각 6개로 나누어 자아가치 1과 자아가치 2라는 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림 1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6개의 측정변수는 모두 각 이론변수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이론변수 간의 상관 역시 유의하였다. 3요인 모델의  $\chi^2$ 값은 유의하였으나,  $\chi^2 = 63.08$ ,  $df = 6$ ,  $p < .05$ ,

NFI(Normed Fit Index) = .93, CFI(Comparative Fit Index) = .93, IFI(Incremental Fit Index) = .93, GFI(Goodness of Fit Index) = .93 가 모두 .90 이상이므로 모델 적합도도 비교적 우수하였다.

3개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1요인 모델도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동일한 측정변수를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이라는 1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6개의 측정변수 모두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그러나 모델 적합도는 NFI(Normed Fit Index) = .86, CFI(Comparative Fit Index) = .86, IFI(Incremental Fit Index) = .87, GFI(Goodness of Fit Index) = .87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하지 못하였으며,  $\chi^2$ 값 역시 3요인 모델에 비해 높았다,  $\chi^2 = 128.18, df = 9, p < .05$ . 두 모델간의  $\chi^2$ 값 차이가 유의하여,  $\chi^2$  difference = 61.1,  $df = 3, p < .05$ , 3요인 모델이 1요인 모델보다 우수하였다.

**예언타당도 검증**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

호작용 효과가 6주 후의 절망감 우울변화를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표 3에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을 포함하는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다,  $F(2, 281) = 27.72, p < .05$ . 모형내 예측변인인 6주 동안 경험한 부정적 생활사건은 T1에서 T2까지의 절망감 우울점수 잔차 변화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pr = .31, t(281) = 5.37, p < .05$ , 우울생성적 추론양식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pr = .23, t(281) = 3.88, p < .05$ . 분석의 핵심인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T2의 절망감 우울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F(1, 280) = 10.18, p < .05$ , T1에서 T2까지의 절망감 우울점수 잔차 변화량의 4%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에서 성차가 존재하여 성별효과를 회귀식에 투입하여 통제한 후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을 검증하였다. 표 4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성별효과를 통제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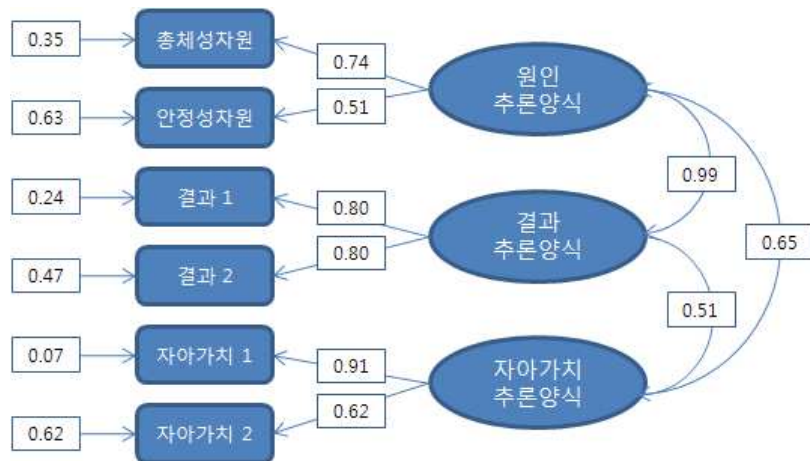


그림 1. 3요인 모델 검증



에도 상호작용 효과는 T2의 절망감 우울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F(1, 278) = 9.91, p < .05$ , T1에서 T2까지의 절망감 우울점수 잔차 변화량의 2%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추가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라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의 검증결과가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표 5에서 남자의 경우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T2의 절망감 우울점수를 유

의하게 예측하였으며,  $F(1, 152) = 11.20, p < .05$ , T1에서 T2까지의 절망감 우울점수 잔차 변화량의 7%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이 기각되었다,  $F(1, 122) = 1.65, ns$ .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그림 2에 있다. 그림 2를 보면 우울생성적 추론양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위

표 3.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

순서	변인	$\Delta R^2$	F	df	t	pr	pr <sup>2</sup>
1	T1 절망감 우울증	.29	113.38*	1, 283		.54	.29
2	(주효과 변인)	.12	27.72*	2, 281			
	우울생성적 추론양식(A)			281	3.88*	.23	.05
	부정적 생활사건(B)			281	5.37*	.31	.09
3	A×B	.02	10.18*	1, 280		.19	.04

\*  $p < .05$

표 4.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성별 통제)

순서	변인	$\Delta R^2$	F	df	t	pr	pr <sup>2</sup>
1	(통제 변인)	.30	59.84*	2, 281			
	성별				-1.99*	-.01	.01
	T1 절망감 우울증				10.94*	.55	.30
2	(주효과 변인)	.11	25.68*	2, 279			
	우울생성적 추론양식(A)			279	3.61*	.17	.03
	부정적 생활사건(B)			279	5.31*	.25	.06
3	A×B	.02	9.91*	1, 278		.14	.02

\*  $p < .05$

표 5.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남자)

순서	변인	$\Delta R^2$	F	df	t	pr	pr <sup>2</sup>
1	T1 절망감 우울증	.41	107.34*	1, 155		.64	.41
2	(주효과 변인)	.05	7.58*	2, 153			
	우울생성적 추론양식(A)			153	1.66	.13	.02
	부정적 생활사건(B)			153	3.03*	.24	.06
3	A×B	.04	11.20*	1, 152		.26	.07

\*  $p < .05$

험 집단은 부정적 생활경험 수준이 증가하여도 절망감 우울수준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b = -.04$ ,  $t = -.60$ ,  $ns$ . 반면에, 우울생성적 추론양식 점수가 높은 고위험 집단은 부정적 생활경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절망감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30$ ,  $t = 4.66$ ,  $p < .05$ . 즉, 부정적 생활사건의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추론하는 경향이 없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부정적 생활경험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울수준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부정적 생활사건의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에 대해 우울생성적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될수록 절망감 우울수준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절망감 우울증에 미치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을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이 일정하게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론양식 척도의 예언타당도는 지지되었다.

### 판별타당도 검증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가 우울증과 공존이환율이 높은 불안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T2의 불안을 유의하게 예

표 6. 고·저위험 집단의 주요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고위험 집단(N = 71)		저위험 집단(N = 7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1 절망감 우울증	16.59	9.73	17.15	11.51
T6 절망감 우울증	20.20	12.79	15.13	8.45
우울생성적 추론양식	4.92	0.33	3.14	0.36
부정적 생활사건	33.44	16.71	28.10	1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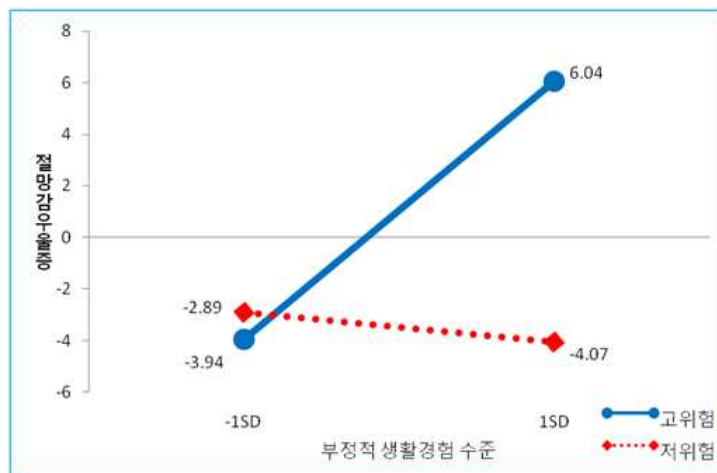


그림 2.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후검증

측하였다,  $F(1, 281) = 4.16, p < .05$ . 따라서 추론양식 척도의 판별타당도는 지지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 추론양식 척도가 절망감 우울증의 인지취약성 요인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론양식 척도는 신뢰로운 척도이다. 2주 및 6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2번의 측정에서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의 내적일치도는 .91~.93, 개별 추론양식의 내적일치도는 .78~.87수준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로 양호하였다. 둘째, 추론양식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절망감 이론과 동일하게, 추론양식 척도는 3개의 잠재요인(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 추론양식)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추론양식 척도의 예언타당도가 지지되었다. 추론양식 척도로 측정된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6주 후의 절망감 우울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하지만 불안도 유의하게 예측하여 예언타당도와 달리 판별타당도는 기각되었다.

추론양식 척도로 측정된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은 절망감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우울증의 인지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정적 생활사건의 원인이 삶의 다른 영역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생활사건이 또 다른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며,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 생활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수준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달리 부정적 생활사건의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를 부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

생활경험이 증가하더라도 우울수준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의 귀인양식 척도를 활용한 연구와는 달리 추론양식 척도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절망감 이론의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검증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매일의 우울변화(Hankin et al., 2005), 5주 후의 우울(Haefel et al., 2007), 10주 후의 우울(Abela & Sarin, 2002), 1년 후의 우울(Abela, Aydin, & Auerbach, 2006), 2년 후의 우울(Hankin, Abramson, Miller, & Haefel, 2004)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6주 후의 절망감 우울변화를 예측하였다. 또한 청소년(Hankin & Abramson, 2002), 대학생(Haefel et al., 2003), 성인(Abela et al., 2006), 아동 임상집단(Abela, Gagnon, & Auerbach, 2007)에서도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이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절망감 이론에 대한 검증결과가 혼란되었던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귀인양식 척도라는 신뢰도가 낮은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세 가지 추론양식 중 일부만을 측정하여 부정적 생활사건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이다. 세 가지 부정적 추론양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부 추론양식만 임의로 선택하여 검증할 경우 기존 연구처럼 혼란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Abela & Sarin, 2002).

한편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생성적 추론양식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 성별의 중재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성과 달리 여성의 우울증은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Nolen-Hoeksema, Girgus와

Seligman(1991)의 연구에서 소녀에 비해 사춘기 소년의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귀인양식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귀인양식 수준의 성별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Gladstone, Kaslow, Seeley, & Lewinsohn, 1997; Hankin & Abramson, 2001; Thompson, Kaslow, Weiss, & Nolen-Hoeksema, 1998). 오히려 소녀의 인지취약성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Hankin & Abramson, 2002). 또한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Morris, Ciesla와 Garber(2008)의 연구에서 소년의 경우에만 절망감 이론의 예측대로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녀의 우울증을 설명하는 인지취약성 요인과 스트레스의 역할에는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 소녀의 우울증은 인지취약성 요인과 무관하게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우울수준도 높았다. 이는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우울반응을 보인다는 스트레스 반응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서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울수준이 가장 높아서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이 지지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Bohon, Burton, Fudell과 Nolen-Hoeksema(2008)는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 검증에서 표본크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보다 많은 사례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재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울증과 불안의 높은 공존이환율을 고려하면 우울한 참여자 중 상당수는 불안도 함께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울증의 위험요인인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의 불안에 대한 판별타당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검증결과에서 불안에 대한 판별타당도는 기각되었다. 일부 연구에서 인지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도 함께 예측하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Garber, Weiss, & Shanley, 1993; Haefel et al.,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절망감 우울증에 대한 검증과 달리 초기 불안수준을 통제하지 못하여 연구방법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 불안수준을 통제한 보다 엄격한 후속 연구를 통해 판별타당도를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우울증 예방을 위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추론양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추론양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이 부정적 생활사건에 의해 활성화되지만, 정작 우울한 사람은 그 사실(부정적 사고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이 자기패배적인 부정적 추론을 하고 있음을 알고 통제함으로써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둘째, 우울증은 청소년기(18~24세)에 급속한 비율로 증가한다(Beaudet, 1996; Lewinsohn, Hops, Roberts, Seeley, & Andrews, 1993).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 보다 뚜렷한 증가를 보인다. 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우울증에서의 성차는 성인까지 지속되어 여성의 우울증 발병률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다(Nolen-Hoeksema & Keita, 2003).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급증하는 이유로 우울생성적 추론양식과 같은 인지취약성 요인

의 안정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특히 여학생에게 예방 전략을 집중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으로 첫째, 절망감 이론은 절망감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 사이에 일련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우울생성적 추론양식은 부정적 생활사건의 원인, 결과 및 자아가치에 대한 추론에, 추론은 다시 절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절망감은 절망감 우울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정적 생활사건의 발생으로 촉발된 일련의 원인과정에서 추론양식 척도로 측정된 추론양식이 추론과 절망감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되어야 보다 확실한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추론양식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그 결과 많은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Coyne(1994)는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을 참여자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 특히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O'Connor, Connery와 Cheyne(2000)은 자살시도 환자의 절망감을 추론양식으로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검증결과를 보고하였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추론양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인지취약성 요인으로 제안되어 온 인지왜곡이론의 역기능적 태도(Beck, 1987) 및 반응양식이론의 반추(Nolen-Hoeksema, 1991)와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론양식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응답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추론양식만 측정하였으

며, 만약 긍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추론양식까지 측정할 경우 30분 넘게 소요된다. 이와 같은 단점은 추론양식 척도를 임상적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추론양식 척도의 신뢰롭고 타당한 단축형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서울병원 (2005).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서울병원.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태제 (2002).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학지사.
- 윤소미 (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귀인양식, 사건귀인이 무망감과 무망감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규, 이영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이병관, 장필립, 윤애리 (1995).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표준화 연구 I: 신뢰도 및 요인분석. 정신병리학, 4(1), 77-95.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조맹제, 장성만, 함봉진, 정인원, 배안, 이영문, 안준호, 원승희, 손정우, 홍진표, 배재남, 이동우, 조성진, 박종익, 이준영, 김진영, 전홍진, 이해우 (2009). 한국 주요정신장애의 유병률 및 관련요인: 2006 전국정신질환역학조사. 신경정신의학, 48, 143-152.
- Abela, J. R. Z., Aydin, C., & Auerbach, R. P. (2006). Operationalizing the "vulnerability" and

- "stress" components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A multi-wave longitudinal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1565-1583.
- Abela, J. R. Z., & Brozina, K. (2004). The use of negative events to prime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 209-227.
- Abela, J. R. Z., Gagnon, H., & Auerbach, R. P. (2007). Hopelessness depression in children: An examination of the symptom component of the hopelessness the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 401-417.
- Abela, J. R. Z., & Payne, A. V. L. (2003). A test of the integration of the hopelessness and self-esteem theories of depression in schoolchildr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 519-535.
- Abela, J. R. Z., & Sarin, S. (2002). Cognitive vulnerability to hopelessness depression: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811-829.
- Abramson, L. Y., & Metalsky, G. I. (1989). *The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Measurement of Negative Cognitive Styles about Self and Consequences*. Unpublished manuscript.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 (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 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lifornia: Sage.
- Alloy, L. B., Abramson, L. Y., Hogan, M. E., Whitehouse, W. G., Rose, D. T. Robinson, M. S., Lapkin, J. B., & Kim, R. S. (2000). The Temple-Wisconsin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roject: Lifetime history of axis I psychopathology in individuals at high and low cognitive risk f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03-41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Text Revision -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audet, M. P. (1996). Depression. *Health Reports*, *7*, 11-24.
- Beck, A. T. (1987).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 5-37.
- Bieling, P. J., & Grant, D. A. (2007). Toward bridging the science and practice of depression prevention: What can we learn from cognitive vulnerability? *Canadian Psychology*, *48*, 240-255.
- Bohon, C., Stice, E., Burton, E., Fudell, M., & Nolen-Hoeksema, S. (2008). A prospective test of cognitive vulnerability models of depression with adolescent girls. *Behavior Therapy*, *39*, 79-90.
- Burcusa, S. L., & Iacono, W. G. (2007). Risk for recurrence in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 959-985.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oyne, J. C. (1994). Self-reported distress: Analog or ersatz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6*, 29-45.
- DeVellis, R. F. (199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 Garber, J., Weiss, B., & Shanley, N. (1993). Cognitions, depressive symptoms, and

- develop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47-57.
- Gladstone, T. R. G., Kaslow, N. J., Seeley, J. R., & Lewinsohn, P. M. (1997). Sex differences,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297-306.
- Haefel, G. J., Abramson, L. Y., Brazy, P. C., Shah, J. Y., Teachman, B. A., & Nosek, B. A. (2007). Explicit and implicit cognition: A preliminary test of a dual-process theory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1155-1167.
- Haefel, G. J., Abramson, L. Y., Voelz, Z. R., Metalsky, G. I., Halberstadt, L., Dykman, B. M., Donovan, P., Hogan, M. E., Hankin, B. L., & Alloy, L. B. (2003).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and lifetime history of axis I psychopathology: A comparison of negative cognitive styles(CSQ) and dysfunctional attitudes(DAS).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17*, 3-22.
- Haefel, G. J., Gibb, B. E., Metalsky, G. I., Alloy, L. B., Abramson, L. Y., Hankin, B. L., Joiner, T. E., & Swendsen, J. D. (2008). Measuring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824-836.
- Hankin, B. L. (2008). Stability of cognitive vulnerabilities to depression: A short-term prospective multiwave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 324-333.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27*, 773-796.
- Hankin, B. L., & Abramson, L. Y. (2002). Measuring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adolescence: Reliability, validity,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 491-504.
- Hankin, B. L., Abramson, L. Y., Miller, N., & Haefel, G. J. (2004). Cognitive vulnerability-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Examining affective specificity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versus anxiety in three prospective studi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 309-345.
- Hankin, B. L., Abramson, L. Y., & Siler, M. (2001). A prospective test of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in adolescenc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607-632.
- Hankin, B. L., Fraley, R. C., & Abela, J. R. Z. (2005). Daily depression and cognitions about stress: Evidence for a traitlike depressogenic cognitive style and the predic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a prospective daily diary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673-685.
- Harris, E. C., & Barraclough, B. (1997). Suicide as an outcome for mental disorders. A meta-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0*, 205-228.
- Hollon, S. D. (1992).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from a psychobiological perspective. *Psychological Inquiry, 3*, 250-253.
- Kupfer, D. J., Frank, E., & Wamhoff, J. (1996). Mood disorders: Update on prevention of recurrence. In C. Mundt & M. J. Goldstein (Eds.), *Interpersonal Factors in the Origin and Course of Affective Disorders* (pp. 289-302). London: Gaskell/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 Lewinsohn, P. M., Hops, H., Roberts, R. E., Seeley, J. R., & Andrews, J. A. (1993). Adolescent psychopathology: I. Prevalence and incidence of depression and other DSM-III-R disorder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133-144.
- Metalsky, G. I., Halberstadt, L. J., & Abramson, L. Y. (1987). 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actions: Toward a more powerful test of the diathesis-stress and causal mediation components of the reformulated theory of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86-393.
- Metalsky, G. I., & Joiner, T. E. (1997). The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359-384.
- Morris, M. C., Ciesla, J. A., & Garber, J. (2008). A prospective study of the cognitive-stress model of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 719-734.
- Murray, C. J. L., & Lopez, A. D. (1996).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69-582.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 (1991).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explanatory style in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33-245.
- Nolen-Hoeksema, S., & Keita, G. P. (2003). Women and depression: Introduc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7*, 89-90.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O'Connor, R. C., Connery, H., & Cheyne, W. M. (2000). Hopelessness: the role of depression, future directed thinking and cognitive vulnerability. *Psychology, Health, and Medicine, 5*, 155-4161.
- Swendsen, J. D. (1997). Anxiety, depression, and their comorbidity: An experience-sampling test of the helplessness-hopelessness theo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97-114.
- Thompson, M., Kaslow, N. J., Weiss, B., & Nolen-Hoeksema, S. (1998).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revised: Psychometric examin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0*, 166-170.

원고접수일: 2010년 3월 16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5월 13일

게재결정일: 2010년 6월 9일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Jung-Hyun, Yoo      Myoung-Ho, Hyun  
Dep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CSQ) measures the cognitive vulnerability factor featured in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The CSQ has been used in some published studies since its inception, however, validity properties of a Korean version of this instrument have yet to be tested. In the study,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SQ were evaluated for use with college students. The CSQ demonstrated excellent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good test-retest reliabi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ere were 3 latent factors to the CSQ. Moreover, to evaluate a predictive validity of the CSQ, a vulnerability-stress interaction of hopelessness theory was tested. In line with the hypothesis, the interaction of the CSQ with negative events significantly predicted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s.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he CSQ is a highly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hopelessness depression.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conceptualizing and operationalizing cognitive vulnerability are discussed.

*Keywords:* The Cognitive Style Questionnaire, CSQ, Depressogenic inferential style, Hopelessness, Hopelessness depression, Reliability, Validity